Landscape Review 조경평론

VOL • 024

Contents

세계 속의 한국정원
Korean Gardens around the World

02 총론 / 해외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는 의미와 가치 _ 홍광표
04 국가정책으로서 한국정원 보급 _ 김선미
05 타슈켄트 서울공원: 실크로드에 조성된 한국정원 _ 신현돈
06 주일한국대사관 한국정원 _ 전은정
07 미국 어바인 한국정원 조성 계획 _ 윤상준
08 브라질 한국정원: 흙토류 캐는 시대의 한국정원 _ 신현돈
09 이벤트 속의 한국정원 _ 윤상준
10 독일 베를린 서울정원 _ 박희성
11 BOOKS & REPORTS _ 김영민, 전진형, 윤상준
12 NEWS _ 윤상준, 신현돈

표지사진 _ 광조우 ©권진욱

해외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는 의미와 가치

중국 시안의 순천정 ©권진욱

글
홍광표 한국전통조경학회 고문
hkp@dongguk.ac.kr

우리나라에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궁남지에 대한 기사가 그것을 입증해준다. 궁남지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안압지에 대한 기록은 한국고대정원의 모습을 보다 디테일하게 전해준다. 궁남지와 안압지에 대한 기록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정원이 조성된다. 지금까지 남아서 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지만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것도 많다.

정원은 특정한 장소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응축해놓은 타임캡슐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정원에서는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사상이나 철학을 낱낱이 살필 수 있다.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나 왕족들의 심미관이나 우주관도 엿볼 수 있고, 사대부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삶이 고달팠던 서민들의 모습까지도 담고 있으니 한국의 전통정원은 우리들이 그린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정원이 가지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정원을 문화상품으로 포장해서 이것을 국가홍보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정원은 이제 단순히 열락의 공간이요,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공간이라는 순수한 정의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일본 오사카꽃박람회장 내 한국정원 ©홍광표

정원이 문화상품으로 선호되는 새로운 경향은 세계정원박람회와 같은 이벤트가 빈번하게 열리는 것으로 입증된다. 작은 동양의 나라, 한국의 전통정원이 세계인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원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정원을 외국에 조성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정원이 가지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해외각지에 일본정원을 만들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정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특히 미국에 많은 일본정원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대략 150여개의 일본정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일본인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수의 일본정원을 만든 것은 일본문화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순수한 방법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일본이 진정한 문화민족이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알려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반일감정을 없애려는 속셈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급기야 일본상품에 대한 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일본상품의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크게 작용하게 된다.

많은 수의 일본정원이 미국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미국에 조성된 본격적인 한국정원은 단 한군데도 없다.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은 15개소 정도라고 한다. 유럽에 4개소, 일본에 4개소, 중국에 2개소, 기타 지역에 조성된 것이 5개소이다. 그야말로 일본정원의 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다. 물론 많은 수의 정원보다는 잘 만들어진 정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 어느 곳을 가도 자기 나라의 정원을 만날 수 있고, 그 정원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그들의 정원을 세계 여러 곳에 만들기 시작했다. 최근에 만들어진 중국정원을 보면 규모나 디테일 모두 최고의 수준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정원으로 깊이 살펴보면 최고의 진정성, 최선의 접근성, 그리고 최대의 공간성을 확보하는데 무한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중국정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문화의 높은 수준을 알리는데 있어서 정원만큼 좋은 상품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정원 만들기 경쟁에 아직까지 한국은 동참할 채비를 갖

광조우 해동 경기원 ©권진욱

추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아마도 해외에 만들어진 한국전통정원이 미치는 영향이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통정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한 효과와 가치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원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선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더구나 비용에 비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세계 각국에 나가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한편으로는 향수를 달래는데 정원이 가지는 역할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도 정원은 교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식이나 돌잔치 혹은 축하연과 같은 행사장으로 쓰일 수 있다. 그만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진 한국의 전통정원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조성된 해외의 한국정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작품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성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의 약속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조성은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원박람회에 출품된 정원 역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간기업이나 교민이 투자해서 만든 정원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유명 기업들의 해외수출실적을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 결과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왜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한 한국정원이 없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아주 조금만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된 우리의 정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한국전통정원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LA 교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원조성사업이 10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한 국민들의 성금을 가지고 해외에 우리의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나에게 도움 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해외에 정원조성을 위해서 성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결국 해외에 우리의 전통정원을 조성하는 일은 조경인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경인들이 정원조성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와 민간기업체, 교민들과 국민 모두에게 해외에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경인들이 먼저 해외에 전통정원을 조성해야 하는 일에 공감대를 가지고 동의해야 한다. 해외에 한국전통정원을 만드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경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으로서 한국정원 보급

글
김선미 LH공사 녹색경관처장
ksm5397@lh.or.kr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에서는 2011년 12월, '한류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한국 전통정원 조성방안 연구'가 위원회에 제안되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드라마를 비롯한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대단해서, 걸 그룹 소녀시대 앨범의 일본 발매 첫날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SM 타운 가수들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공연에는 1만 5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하기도 하였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를 반영해 K-팝을 별도의 음악장르로 분류하고 전용채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이처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등을 한(韓)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한 브랜드 육성 사업 중 한옥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마련하고 그 후속 조치로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 국가한옥센터를 개설했다. 이처럼 한옥의 국가 브랜드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계획,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전통정원에 관한 정책이나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미흡하였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과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그들의 정원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자국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정원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전통정원의 해외 조성은 주로 지자체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조성된 사례가 가장 많아 1973년 서울시와 자매결연 한 터키의 수도 앙카라 시에 6 · 25 전쟁 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희생당한 터키의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한국정원이 해외 한국정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어 일본 오사카 EXPO 꽃 박람회 한국전시장 내 한국정원, 이집트 카이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통정원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시에는 서울공원이 조성되었다.

해외에 전통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행정적 지원이나 준공 후 관리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전통정원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한국 전통정원 보급 활성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를 국가건축위원회 주관 하에 2회에 걸쳐 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 진행하였다.

2012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의 기간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과연 한국의 전통정원은 어떠한 사상적 배경과 유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해 전통정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외와 국내에 조성되어있는 한국전통정원의 사례와 외국의 해외정원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정립된 개념과 사례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통정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보장하기 위한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 시 설계지침 및 자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한국전통정원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정부 주도에 의한 시범 전통정원 조성, 해외공관 활용과 같은 선도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전통정원의 보급 전략 방안으로 정원의 진정성 구현인지 국가 브랜드 홍보인지에 따라 단계적이며 다차원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함도 제시하였다.

모쪼록 도출된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승화시켜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우수한 정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윤상준

타슈켄트 서울공원

실크로드에 조성된 한국정원

글 · 자료
신현돈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대표이사
SARND@chol.com

위치 : 외교단지 인근, Tashkent, Uzbekistan
조경면적 : 8,000m²
착공일시 : 2012년 12월
준공일시 : 2014년 6월 중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타슈켄트Tashkent, 나보이Navoiy…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와의 활발한 교류와 자원개발의 중요성으로 인해 어느덧 우리의 곁에 다가와 있다. 이런 타슈켄트에 서울시에 의해서 한국 정원이 조성되었다. 위치는 수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시내 외교단지 방향 3.8km에 조성되었으며 주변에는 이자미 사범대학의 대학로가 있고 북측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결혼신고 센터가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외교단지와 인접해 홍보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5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고려인 대표가 한국공원 조성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타슈켄트시 내에 서울공원 조성을 부지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절차를 추진해 본격적인 서울공원 조성방안이 추진되었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에 따라 양 도시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타슈켄트 서울 공원 조성 및 관리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타슈켄트 바부르공원Tashkent Babur Park지역에 조성되는 서울공원에 대한 현상공모 절차를 거쳐 서안알앤디 디자인(주)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서울공원은 대한민국과 수도서울의 이미지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한국 전통조경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반영한 설계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제까지 외국공원에 조성된 한국 혹은 서울공원들이 대부분 조선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을 했던 한계를 벗어나, 17만 고려인들이 정착했었던 과정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옛 고려의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공원의 공간경험은 두 가지 시점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고려인과 현지 한국인 등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공간경험이다. 서정적이고 다원적인 공간구조를 지나면서 체험하는 경관의 단서들을 통해 고향, 한국의 정취를 더듬어나가는 연속적 경관 체험의 장이다. 다른 하나는 타슈켄트 시민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경험으로서, 낯선 경관에서 느끼는 새로움과 지형과 경관을 다루는 다양한 기법 및 자세를 읽으며 과거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와 교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원에서의 산책을 하며 한국의 경관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느끼는 과정으로 설정되었다.

타슈켄트 서울공원의 특징은 방문객에게 공간을 한 번에 오픈시키지 않고 간정(間定) 등을 조성하여 깊이 있는 공간감을 연출하고 연속성을 부여하는 시퀀스적sequence 효과를 중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서(瑞) 맞이 영빈마당은 타슈켄트 서울공원에 주 정원으로, 방문객이 고려인 풍류마당으로 한 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담장으로 위요하여 깊이감을 더해주었다. 또한 야외행사시 무대지원시설의 기능을 부여하여, 간이개복청(改服廳)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 건축물은 궁궐이나 사찰의 화려한 정자보다 별서정원이나 서원의 소박하고 단아한 한국의 정원미를 살렸다.

타슈켄트 서울공원 ©신현돈

한국정원의 여러 개로 분절된 다원적(多元的) 공간은 주변의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바깥마당, 간정, 안마당, 영빈마당, 고려인마당, 후원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정원구조물은 매화원, 후원 등의 성격을 강화하는 화계, 방지와 기단 등의 정원 구조물과 공간구조의 다양성을 주는 기단, 선큰 마당 등으로 조성하였다. 정원시설물은 각 마당의 공간별 성격에 맞는 전통 석물이 배치되었으며, 도입된 식물은 타슈켄트의 기후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한 우리의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우리 전통의 경관을 연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세계로 통(通)하는 디자인"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가치관은 달라도 사람들이 정원을 찾는 이유는 대륙적인 스케일에서 오는 감동과 희열이 아니라 생활주변, 삶 속에서 찾는 소소한 감동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소소함과 단아함 동시에 친근함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한국정원은 위치적, 문화적, 기후적 차이를 극복하여 유라시아에 녹아드는 한국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일한국대사관 한국정원

글 · 자료
전은정 조경포레(주) 소장
laforet@chol.com

위치 : 東京都 港區 南麻布 1-2-5
대지면적 : 10,202.36m²(3,086평)
조경면적 : 7,879.76m²(2,383평)
준공일시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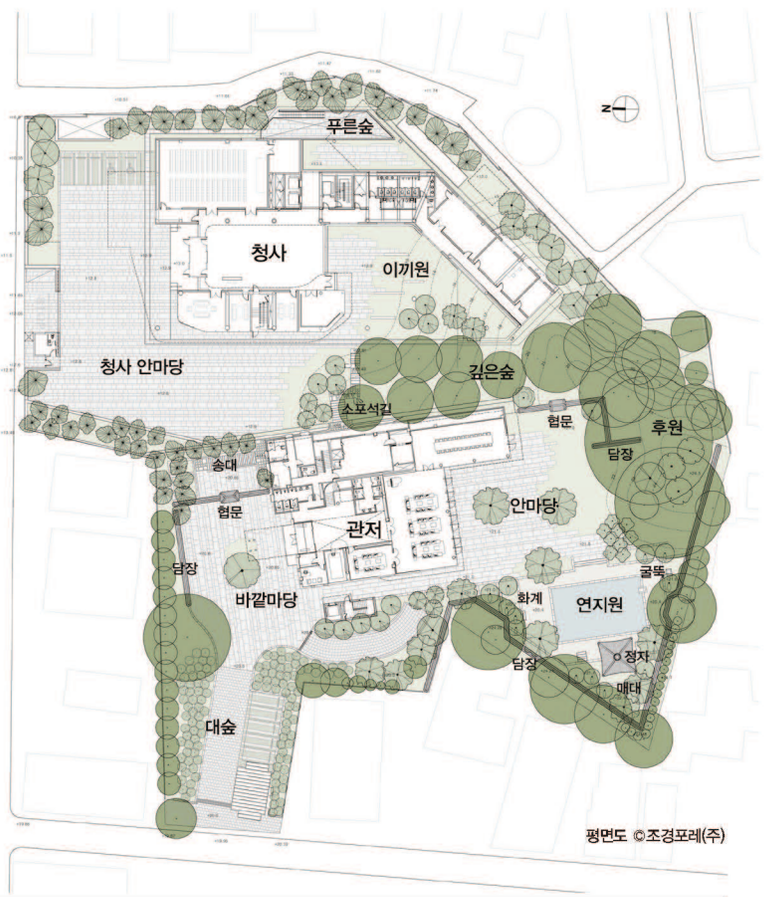
2008년 외교부는 동경 미나미아자부에 위치한 주일본한국대사관의 신축 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이 지역은 세계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어 각국의 청사와 관저들은 각 나라의 문화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다. 기존의 한국대사관은 노후하고 특색은 없었지만 다행히도 지리적, 지형적 여건은 어느 대사관보다 뛰어났다. 원지형과 기존의 오래된 수목이 존재하여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스며들고 자 하는 한국의 자연관(정원관)을 담아내는 자세로 땅의 여건을 해석하고, 지세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현상공모 결과 기존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살리는 건축배치와 한국정원을 구현하는 안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계획안에는 동경의 한 복판에 한국정원의 구성원리가 스며든 공간배치로 재구성된 청사와 관저, 그에 따른 정원을 담았다. 청사와 관저의 배치를 건축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기존지형에 최대한 순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담으로 분절되면서 담 사이로 생기는 마당과 담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외부공간을 풀어나갔다.

250년 이상 수령의 후박나무와 녹나무,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93주의 수목이 존치되었다. 정원의 구성은 대사관저의 경우 외교적 목적의 연회와 접대를 주로 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진입공간인 대숲을 거쳐 바깥마당, 안마당, 연지원과 정자, 후원 등으로 한국적 전통정원의 공간구성 원리가 적용되었고, 송대, 화계, 매대, 협문, 전통담장 등과 동자석, 벅수, 굴뚝 등의 점경물을 곳곳에 두어 시대를 뛰어넘는 전통미학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감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의 동의 없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들과 대사관이라는 특성상 준공 후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주일한국대사관 현상공모 이후 대사관 정원에는 '정자와 연못'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게 되었다. 이 규정을 조경가의 입장에서 일보 진전한 것이라고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세계 속의 한국정원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고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감도 ©(주)창조건축



평면도 ©조경포레(주)

미국 어바인 한국정원 조성 계획

글 · 자료
윤상준 조경설계 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 소장
alpinet0504@hotmail.com

한국정원 홍보책자 ©윤상준

어바인 현장 답사 ©윤상준

어바인 시 담당자 회의 ©윤상준

세계화시대 맞이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문화교류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적 특징을 담은 전통정원 조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외국 도시와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등의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들은 단지 명목상의 협력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단발성의 행사보다는 해당 도시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시작하면서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으로서 한국정원을 외국도시에 조성하기 사례가 생겨났다. 우리나라가 외국도시에 조성하는 한국정원은 하나의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성을 제외하고는 국내민간자본과 정부 차원의 한국정원 조성은 극히 드물고 더구나 해외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한국정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에 계획된 한국정원은 2012년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주최로 기획된 사업이다.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해외 한국정원조성사업 계획으로 어바인 시에서 대상지를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정원을 조성하여 어바인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민간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지방정부 간에 진행되는 사업과 달리 진행과정상 여러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존재한다. 우선 해당 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이 과정이 지난 후에는 시의회에서 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의 긍정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조성과정 중에도 시의 지속적인 감리를 받아야 하는 등 각 단계별 많은 시간과 오력이 요구된다.

어바인 시의 경우 2013년 3월 5일을 시작으로 3번에 걸쳐 어바인 시장을 비롯한 담당자 미팅을 가졌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정통정원 조성을 위한 시의 협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11월 12일에는 어바인 시의회에 한국전통정원 조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시의회에서 주고나단체인 한국전통정원학회에 대한 설명, 사업의 당위성, 자금마련계획, 조성 후 효과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현지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어바인 시의회로 부터 사업 착수 승인을 이끌어 낸 후 주무 부서로 Community Service Department가 지정되어 사업이 착수되었다. 현재는 사업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내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

국내에서 정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이며 다방면으로 기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계 경기를 통한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바인시에 조성되는 한국전통정원은 미국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함께 양국의 우호증진 및 미국내 한국인들에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어바인 시민과 더 나아가 LA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헌정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브라질 한국정원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 캐는 시대의 한국정원

글 · 자료
신현돈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대표이사
SARND@chol.com

위치 : Araxá, Minas Gerais, Brazil
조경면적 : 6,000m²
착공일시 : 2014년 7월
준공일시 : 2015년 6월 중순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해 운석에 대한 흥미가 많아지고, 희토류인 나이오븀Niobum이 강원도에서도 발견되어 국내에서도 희토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융합제품, 초전도체, 의료용구 등의 신소재, 촉매성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세계 최대 희토류 나이오븀 생산지인 브라질 아락사Araxa시에 있는 CBMM회사 광산주변에 한국정원이 조성된다. 아락사 시는 해발 약 970미터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 21도의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1800년도 아락사 시는 도망친 노예사회인 킬롬보Quilombo의 피난처였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가 아락사 시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아락사 시는 노예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산과 물을 즐기려는 지역사회의 상류층들을 위한 휴양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산과 물이 풍부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관광, 서비스, 채굴, 농경사업을 경제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적한 관광도시이다.

한국정원 대상지 주변에는 이미 10여 년 전 일본정원과 중국정원이 조성 되어 있으며 이곳에 CBMM회사의 주도로 한국정원이 기획되었다. 그 동안 세계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주로 서울시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자본과 정부 차원의 한국정원 조성은 극히 드물고 더구나 해외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한국정원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말 서울에서 한국정원 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건축설계사 2개사와 조경설계사가 참여하여 당선작으로 서안알앤디 디자인(주)의 계획안이 선정되었다. 브라질 한국정원에는 전통 자연관인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읽어내고 풍수지리적 의미(금구입수형, 金龜入首形)를 담고자 기획되었다.

풍수사상의 일환으로 지형의 연출 및 주변 수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현지 풍경에 새길 우리의 아름다움을 예측하고 관련성을 갖는 것에 주력하여 한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구조와 오브제(계정, 지형을 활용한 화계, 벽수 등)가 도입되었다. 또한 다원적 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주변의 경치를 끌어들이는 차경(借景)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대상지 주변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연출하였다.

안마당은 한국정원의 연못, 와편무늬담장, 지형에 순응하는 화계를 배치하여 한국전통정원이 갖고 있는 경관성을 부각시켰으며 채원을 배치하여 한국의 소박한 경관 미학을 접하는 정원을 표현하였다. 안마당과 열린마당 사이에 불로문은 경계와 영역 설정 및 공간의 전환이 유도되었다. 열린마당의 종루는 17만 고려인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종루정원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정하고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자연형의 곡지+방지, 계류를 통해 완상과 사색의 정원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정원의 특색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형태와 양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담고 땅에 순응하며 공간을 위요, 개방시킴으로써 시적인 접근(Poetic Approach)을 연출했다는 점이다. 기존 자원의 활용 및 한국의 사상과 디자인을 담은 서정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의 정서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풍류와 감동을 남미지역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4월 3일 아락사 시에서 한국정원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수 및 마스터플랜 발표회가 있었으며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7월에 착공되었다.

대상지 주변 희토류 광산의 산업경관(위), 브라질 한국정원 현지워크샵(아래) ©서안알앤디

이벤트 속의 한국정원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화원 ©RHS

글 · 자료
윤상준 조경설계 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 소장
alpinet0504@hotmail.com

정원을 보는 것은 한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정원이 특정한 장소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응축되고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러 층이 쌓인 문화의 총체적인 공간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정원은 인간이 자연환경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 기억, 정서, 의미, 역사 등이 담긴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은 더욱이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원을 문화상품화하여 국가홍보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는 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표현에 있어 단순 전통정원의 재현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각국의 다양한 정원이 정원박람회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표현 전시되고 있다. 이에 정원은 이제 단순히 열락의 공간이자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공간이라는 순수한 정의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국가를 대변하는 정원 형태에 있어 근래의 세계적 추세는 전통적 공간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어느 국가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 과거 전통정원의 재현 보다는 현재 자국에 조성된 정원이나 자국민에 의해서 조성된 정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통정원도 한국정원이지만 한국사람에 의해서 설계되고 조성된 정원도 한국정원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원박람회 등 이벤트에서 시도되는 한국정원의 역할과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전통적 요소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한국 현대 정원을 정립해 나갈 수 있고 또한 해외에서의 반응을 통하여 새로 시도된 정원을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통적 설계개념, 담긴 의미, 요소를 활용하여 재해석한 시도뿐만 아니라 현대적 가치관이 표현된 시도가 국 · 내외 이벤트를 통하여 늘고 있다. 2011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전시된 전은정 작품인 시적인 정원Poetic Garden은 미술관의 원형 홀을 활용하여 전통정원의 작정 원리를 모티브로 하는 현대정원을 조성 · 전시하였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해외 전시회에 한국정원이 조성되었다. 황지해 작가는 영국 첼시플라워쇼 아티잔가든 영역에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최고의 정원을 수상하였다. 해우소,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는 곳' 혹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라는 뜻의 불교식 용어를 정원문화에 맞게 재해석하여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 원시림으로 살아난 비무장지대를 정원으로 표현한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화원'으로 영국 첼시플라워쇼 쇼가든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4년 프랑스 쇼몽 국제 정원페스티발에 선정된 황혜정 작품 '균형The Balance'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명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노력이 바로 '균형'에 있음을 정원을 통해서 표현한 현대정원이다.

시적인 정원 ©윤준환

해우소 가는 길 ©RHS

독일 베를린 서울정원

글 · 자료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janeha@naver.com

위치 : Erholungspark Marzahn, 12685 Berlin, Germany
조경면적 : 약 3,000m²
준공일시 : 2005년 11월

구동독 구역인 베를린시 마르짠지역의 마르짠 휴양공원Erholungspark Marzahn에는 서울정원이 있다. 1987년 '베를린 정원전시회'를 계기로 개원한 마르짠 휴양공원은 세계의 정원과 케인베르그Kienberg 숲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서울정원은 중국정원, 일본정원, 오리엔탈정원, 발리정원 등 세계 각국 정원이 있는 세계의 정원 구역에 위치한다.

2004년 베를린 서울정원 기본계획안의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삼성에버랜드는 공간의 설계 모티브를 조선시대 회재 이언적선생이 낙향하여 은둔하였던 독락당에서 가져왔다. 기본적으로는 부지의 지형을 활용하였지만 마당, 계류, 계정까지 독락당과 주변경관을 유사하게 재현하였다. 다만 이용 동선은 정원의 내부를 순환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과 초화류는 독일 현지에서 잘 자랄 수 있으면서도 우리 전통정원과 어울릴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에 걸 맞는 완결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서울정원이 '서울'과 상관없는 경주 안강읍 소재의 독락당에서 가져온 이유는 정원조성의 배경이 본래 전통정원의 설계개념을 한국정원의 대표성에서 찾으려 한 것에서 비롯된다. 삼성에버랜드는 독락당에서 느끼는 '자연과 하나되는 기쁨'을 서울공원에 실천하여 자연과 동화되는 편안함과 장중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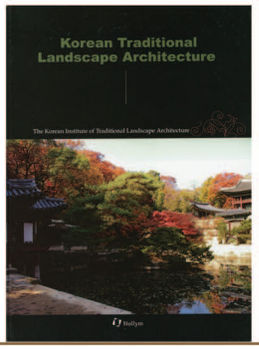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곳이 한국정원이 아닌 서울정원이 된 이유는 공간 실현화에 필요한 제반의 것들을 서울시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의 이명박 시장이 베를린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공동선언문에서 베를린시에 한국의 정원을 조성하는 일이 처음 언급되었다. 근거로 두 도시는 정원 조성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공원 준공 이후에는 베를린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협약하였다.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금고인 (주)우리은행에서 전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완공된 서울정원을 베를린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내 시설물은 서울시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설계변경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모두 서울정원에서 보이는 한국의 고유한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히 서울정원의 특징을 관리를 통해 보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계정마당 ©윤상준

잔치마당 ©윤상준

독락당 ©윤상준

BOOKS &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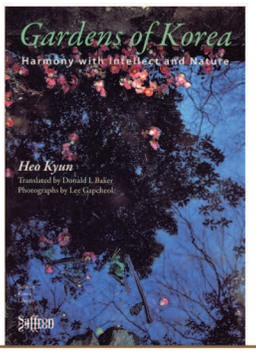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Hollym: 2007)

by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edited)

한국 전통 조경을 연구해온 13명의 연구자가 공동 집필을 한 본 저서는 총 열 개의 장에 걸쳐 한국 조경의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각 유형별 조경 공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저서는 한국 조경 문화를 상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자연환경의 특징과 철학적, 역사적 배경을 기술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왕실조경, 주택조경, 성곽읍성, 별서정원, 조선시대의 왕릉, 중요한 조경 시설물인 누와 정자, 대, 사찰조경, 서원조경과 유학의 세계관, 그리고 마을의 조경을 중심으로 한국 조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각 장에서는 독특한 전통 조경 공간의 특징은 물론 그 의미와 공간에 내재된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간의 특징에 따라서 시대적 구분, 지리적 성격, 문헌에 나타난 공간적 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공간을 다루어온 문화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저서는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한국 전통 조경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영문 저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닌다.

정리 _ 김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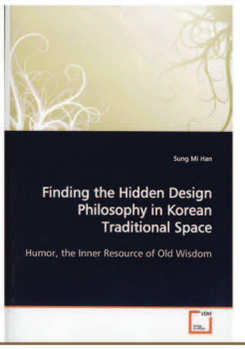
Gardens of Korea: Harmony with Intellect and Nature (Saffron: 2005)

by Heo Kyun(author), Sajid Rizvi(editor), Don Baker (translator)

'Gardens of Korea: Harmony with Intellect and Nature'은 한국의 회화, 건축, 음악 등 예술분야에 비해 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정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허균의 저서인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를 영문 번역하여 2005년 출간된 책이다. 허균은 한국전통미술 및 종교문화의 철학에 관한 여러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한국정원에 담긴 사상이나 배경을 소개하고,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 연당리의 서석지 정원 등 한국의 대표적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그 공간에 얽힌 전설을 중심으로 흐름을 전개한다.

한국 정원은 산세, 계류의 흐름, 바위와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에 쉼터를 만들고 나무와 돌을 정돈하여 최대한 자연 경관을 유지하여 조성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중들에게 한국 정원을 구성하는 상징적인 요소와 의미를 이해하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옛 학자들의 사상과 생활철학을 공감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정리 _ 전진형



Finding the Hidden Design Philosophy in Korean Traditional Space: Humor, the Inner Resource of Old Wisdom (VDM Verlag: 2009)

by Sung Mi Han

이 책은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해학Humor'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작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해학은 한 국가가 가지는 독특한 경험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접근하여 공간에 나타난 예술품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여러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문화적, 예술적, 공간 및 장소적 측면으로 해학을 재해석하여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복궁과 창덕궁, 왕릉, 여러 사찰을 통해 공간과 장소에서의 해학에 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해학적인 면과 이에 대한 해석보다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례로 이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정리 _ 윤상준

NEWS

정리
윤상준, 신현돈

세계 속의 한국정원 현황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한국정원은 약 20개소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한국적 색채를 가지거나 한국 사람에 의해 조성된 정원의 개수다. 전통정원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구현된 곳은 16개소(브라질에 조성 중인 곳 1개소 포함), 전통적 요소를 사용한 정원이 3개소 그리고 현대적 해석을 한 정원이 한 개소가 있다. 최근 프랑스 롱스시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황지혜 작가의 작품으로 순천시가 후원하여 2012년 네덜란드 플로리아드(Floriade)에 출품된 작품이 옮겨져 재조성 된 사례로 순천만 갯벌을 해석하여 디자인한 현대 정원이다.

또한 하와이 마우이, 워싱톤DC 아메리칸 대학, 파리 7대학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전통적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국성이 표현된 한국정원들이다. 이밖에 뉴질랜드 노스쇼어 시, 호주 시드니, 영국 킹스톤,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미국 내 어바인 시를 비롯한 4개시에 한국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현지 교민이나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롱스 시의 한국정원 ©황지혜

한국정원 20개소

- 일본(4): 요코하마 시 미쓰이케고헨 내, 코리아 정원 / 아타미 시 아타미바이엔 내, 한국정원 / 오사카 시 꽃박람회장 내, 한국정원 / 후쿠오카 시 녹화 페어 박람회장 내, 한국정원
- 중국(2): 광조우 시 월수공원 내, 해동경기원 / 시안 시 화훼박람회장 내, 순천정
- 프랑스(4): 파리 시 블로뉴 공원 내, 서울정원 / 파리 시 파리제7대학 내, 솔정원 / 낭뜨 시 그랑블로트로 공원, 순천동산 / 롱스 시, 한국정원
- 독일(2): 프랑크푸르트 시 팔멘공원 내, 한국정원 / 베를린 시 마르짠 휴양공원 내 , 서울정원
- 미국(2): 하와이 마우이섬 평화50주년 기념공원 내, 한국공원 / 워싱톤 DC 아메리칸 대학 내, 한국정원
- 이집트(1): 카이로주 닛세르 시 국제공원 내, 서울공원
- 몽골(1): 울란바토르 시 바얀주르크 국립정원 내, 서울숲
- 우즈베키스탄(1): 타슈켄트, 서울공원
- 우크라이나(1): 키예프 국립식물원 내, 한국정원
- 브라질(1): 아락사, 한국정원
- 파라과이(1): 아순시온 시 뉴과수 시민공원 내, 한국정원

비금, 도초 섬에 수국(Hydrangea)을 주제로 한 한국정원 조성

천사섬 신안군은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창조를 목표로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초도에 수국을 테마로 전국 최대 규모의 수국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3월 12일 도초 수국문화센터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초 수국공원」준공식을 가졌다.

도초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일대를 수국꽃을 테마로 한국정원을 조성하고 교실을 추억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신안 한국정원은 1단계 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 1월부터 10.2ha에 한국정원, 수국공원, 부케정원, 소리마당 등 주제원으로 나누어 수국(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나무수국(Hydrangea paniculata), 불두화(Viburnum sargentii for. sterile) 등 15종 3만여 주의 다양한 수국을 식재하였고, 교실 243㎡를 리모델링하여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졸업생들의 사진을 전시하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수국공원 단계별 확장을 통해 한국정원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며, 폐교를 활용한 수국 문화센터, 수국 유리온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국 개화기인 6월~8월경에는 수국 축제를 개최하는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볼거리, 체험 학습, 휴식 · 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싱톤DC 아메리칸 대학교– 내 한국정원 ©신현돈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정취의 '서울공원' 준공

지난 6월중순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Uzbekistan Tashkent)에 한국정원이 완공되었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에 따라 양 도시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타슈켄트 서울 공원 조성 및 관리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타슈켄트 바부르공원(Tashkent Babur Park)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2011년 10월 현상공모를 거쳐 2014년 6월에 준공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다.

브라질 한국정원(Brazil korean Garden) 착공

브라질 아락사(Brazil Araxa)에 조성되는 한국정원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다. 2012년 말 한국정원 제안 공모전으로 시작된 브라질 한국정원 조성 사업은 해외 민간 기업에서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정원 주변으로는 10여년 전에 중국정원과 일본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한국정원이 완공된 이후 동양의 전통정원이라는 큰 문화 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한국정원 착공기념식수 ©서안알앤디

편집자 레터

필자는 얼마 전 리오데 자네이루 식물원과 부르클린 식물원을 방문하였다. 두 식물원의 공통점은 식물원에 내에 일본정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 곳곳의 식물을 모아놓는 장소에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정원이 존재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조성된 한국정원의 경우 일본정원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 도시에 한국정원이 만들어지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의 정원 박람회에서 한국인들이 초청받거나 수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정원을 다루었다. 전통정원을 재현하거나 한국정원이나 한국인이 설계한 정원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세계인이 한류에 눈뜨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문화의 상품으로 한국정원을 세계 속에 알리는 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조경진

후원사 Miju ECOROCK 미주감화주식회사 CHUNGWOO FUNSTATION 푸른공간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Fax** 02-565-2056
e-mail kila96@chol.com
Homepage www.kila.or.kr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 | 2014년 8월 25일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김한배 회장, 서울시립대)
편집위원장 | 조경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책임편집위원 | 윤상준(조경설계 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
편집위원 | 김병채(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서울시립대), 박희성(서울학연구소), 손용훈(서울대 환경대학원), 신현돈(서안알앤디디자인(주)), 이상민(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형숙(가천대), 전은정(조경포레(주)), 전진형(고려대), 전재현(삼성에버랜드(주))
간사 | 유은지((사)한국조경학회)